



검찰이 총장선거와 관련 전남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3일 오후 전남대 박물관 4층에 자리한 박창수 총장 당선자(1순위) 인수위원회 사무실. 직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워 전날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총장 선거 부정의혹 전남대 압수수색

“술·골프 로비 과일.. 올 것이 왔다”

일부 3~4년 전부터 준비... 연 수익 쓰기도

출마자 전원 수사 확대 가능성에 불안·당혹

대학 총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3일 오전 전남대 제19대 총장 당선자(1순위)인 박창수 교수와 선거 참모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교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날 오후 들어 검찰 수사가 총장 선거 출마자 전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직원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한층 커졌다. 하지만 총장선거마다 과열된 탓에 불합법 선거 운동이 판쳤던 터라 “언제가 한번은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가장 치열했던 선거 =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에 따라 이번 선거가 사실상 마지막 직선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선거보다 많은 10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지난 3월22일 교직원 간접선거

를 거쳐 박창수·윤택림 의대 교수, 이병택 공대 교수 등 3명이 결선후보로 뽑혔다.

이어 5월 23일 본선 투표를 통해 박 교수가 총 투표수 1759표 중 46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전남대는 득표 1·2순위인 박 교수와 이 교수를 교과부에 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총장 후보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경우 오는 8월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예초 10명의 후보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보이면서 각종 잡음이 일었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을 전후해 일부 후보들이 갈비세트나 과일 등을 선물로 돌린 것은 약과였다.

대부분의 선거가 부정 개입 차단을 위해 간접선거 후 수일 내에 직접선거를 치르고 있으나, 이번 전남대 총장 선거는 간선과 직선 사이의 기간이 무려 2개월이나 벌어져 혼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후보나 지지자들은 주말 골프장

에서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음식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게 교직원들의 증언이다.

◇선거 어떻게 준비하나 = 총장에 뜻을 둔 일부 후보들은 선거 3~4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 인맥 관리가 쉬운 고교 동문이나 단체를 거점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때문에 동문 수가 많은 광주일고나 광주교 출신, 특히 유권자가 많은 의대 교수들이 총장이 되기에 한결 유리했다.

상당수 임직자들은 평상시에 각종 학내 모임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심지어 골프 주선이나 접대, 톨샬롱 접대 등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제공한다.

명절에 홍삼이나 양주 등 선물 보내기는 ‘생색’ 축에도 끼지 못한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장기전(?)을 염두에 둔 임직자들이 1년에 쓰는 비용은 적게 잡아도 수익원이 넘는다는 게 선거를 치른 교수들의 얘기다.

◇총장 임명 순조로울까? =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힌 뒤,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다. 전남대도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이 탈

락해 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광주교대도 올 초 직선제를 거부했다가 교과부의 예산 제재를 받고 백기를 들었다.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교과부의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불거진 총장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결과에 따라 다양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가 직선제를 고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교과부가 이번 기회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니면 선거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하거나, 당선자 선임 심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국립대 총장 어떤 자리길래 =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제공받고 1800여 교직원의 인사를 총괄한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을 대표하기 때문에 교수라면 한번쯤 꿈꾸는 자리다.

전남대 총장의 연봉은 장관급에 준하는 1억여원이며, 개인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연간 1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관급에 따르는 직급 보조비, 예비규정을 적용받고 전용차량도 배정된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나이롱 환자’ 일가족

140회 허위 입원 보험금 8억 타내

광산경찰, 4명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3일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사고를 위장,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 낸 박모(여·49·광산구 우산동)씨 등 일가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시내 26개 병원에 140차례에 걸쳐 허위 및 과다 입원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8억4452만원을 타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월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상해사고를 위장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경미한 허리통증, 타박상 등 일상생활 속 크게 문제가 없는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수술 및 장기, 반복 입원치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일가족은 수령한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월보험료가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나원침 (8601) 김장두



“동림2지구 폐기물부담금

LH, 26억 안내도 된다”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구청이 LH에 부과한 부담금 25억9400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04년 8월에 폐기물처리 축진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적용 대상 면적이 100만㎡에서 30만㎡ 이상으로 바뀌었으나 LH가 합병 이전인 2001년에 이미 59만㎡로 면제받은 만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 재판부는 “개정령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일

정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적용대상을 규율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령에는 실제계획 변경승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H는 2001년 12월에 59㎡ 면적의 광주시 북구 동림동·운암동, 서구 유촌동 일대에서 동림2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후 2004년 8월 법이 강화되고 2011년 사업지구가 서구로 편입되면서 서구청이 실제계획 변경승인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5억9400여 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철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수역대 사기사건 피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가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돼 송사에 휘말렸다.

3일 서울 강남경찰에 따르면 오모(42)씨와 정모(53)씨는 조씨가 지난 2007년 ‘동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억대 비자금’이 풀리면 갚아주겠다’며 속여 5억1500만원을 가로챘다며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달 25일 오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고 행세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6500만원 뿐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나도 사기를 당해 제삼자에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해 이를 만에 석방됐다.

이에 경찰이 지명수배까지 된 피의자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연철뉴스

10대 넷 의류 수백벌 훔쳐

광주서부경찰은 3일 수입 유명 의류브랜드 매장에 침입해 수백벌의 옷을 훔쳐 판매한 이모(18)군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이모(18)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일 새벽 4시20분경 광주시 서구 중앙동 박모(38)씨의 의류매장에 창문을 깨고 침입, 1100만원 상당의 의류 180여벌과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성년 성추행 50대 벌금 2000만원

○광주교법 전 주 제1형사부는 3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완주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카운터 옆에서 서이 A(12)양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법원은 “A양 입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서씨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해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며 “서씨의 행위는 A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 /전북특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외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